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그 때 이후로 줄기세포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화, 질병에의 줄기세포의 다양한 이용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을 학교 교과과정만으로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을 찾기 위해 논문 읽기, 독서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논문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논문을 읽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기’ 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독서부터 했습니다. 독서를 하며 당연히 모르는 점도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보고, 검색 활동을 통해 점차 지식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이후, 줄기세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할 즈음 동아리에서 각자 정한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표하기를 주저했는데, 선생님께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줄기세포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줄기세포가 뭔지 저만의 언어로 정의 내리지도 못한 채 애먼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책 ‘고맙다 줄기세포’를 읽고 줄기세포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포’ 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지 못 했던 부분도 저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줄기세포에 대한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학습방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습에서는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책을 읽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례로, 원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여러 만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성체줄기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뇌에 정착해 신경세포를 활성화 시키거나, 분화하여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인 만큼, 줄기세포에 대한 견해는 책의 저자마다 달라 본인의 주관을 가진 채, 비판적 수용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저만의 언어’ 사례 적기